

		<b>보 도 자 료</b>		전주국제영화제
배포일	2025. 03. 14.	보도 요청일	2025. 03. 14.	
담 당	홍보미디어팀	취재 문의	063)280-7912 publicity@jeonjufest.kr	

## 한국영화의 거장 배창호를 만나다!

###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

### ‘배창호 특별전: 대중성과 실험성 사이에서’ 개최

- 한국영상자료원과 공동 주최, 코리안시네마 섹션 미니 특별전으로 진행
-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배창호 감독의 영화 세계 조명
- 배창호 감독 다큐멘터리 <배창호의 클로즈 업>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
- 디지털 복원작 <그해 겨울은 따뜻했네>, <꿈>, <황진이> 3개 작품 극장 최초 상영

전주국제영화제(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·정준호)가 한국영화의 거장 배창호 감독 특별전을 개최한다.

전주국제영화제는 한국영상자료원과 공동 주최로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섹션 미니 특별전 ‘배창호 특별전: 대중성과 실험성 사이에서’를 개최한다. 이번 특별전은 한국영화사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한 배창호 감독의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작품들을 통해 대중성과 실험성을 사이를 고뇌하며 작품 활동을 해온 감독의 삶, 영화 철학, 내면 세계 등을 조명한다.



<배창호의 클로즈 업>

상영작으로는 다큐멘터리 1편과 배창호 감독의 작품 중 디지털로 복원한 작품 3편, 총 4개 작품이 준비되어 있다. 다큐멘터리 <배창호의 클로즈 업>(2025)은 관동대 교수이기도 한 박장춘 감독과 배창호 감독이 감독 본인의 삶을 비롯해 작품 세계와 철학 등을 조명한 작품으로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된다.



왼쪽부터 <그해 겨울은 따뜻했네>, <꿈>, <황진이>

제공: 한국영상자료원

디지털 복원작으로는 <그해 겨울은 따뜻했네>, <황진이>, <꿈>이 상영될 예정이다. 우선 이번 상영을 위해 최초로 4K로 디지털 복원된 <그해 겨울은 따뜻했네>(1984)는 박완서 작가의 동명 소설 원작을 바탕으로 한국전쟁에서 살아남은 두 자매의 이야기를 애절하게 그린 영화이다. 배창호 감독이 처음 작가주의 방식을 본격적으로 시도해 극단적으로 적은 컷 수와 느린 전개에 실험성이 돋보이는 <황진이>(1986) 또한 4K 디지털 버전으로 상영될 예정이다. 배우 안성기와 황신혜 출연작으로 실험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배창호 감독의 대표작 <꿈>(1990)은 디지털 버전으로 관객과 만난다.

한편, 이번 특별전에서 배창호 감독은 4편의 영화 상영과 더불어 초청 게스트와 함께 GV를 통해 관객과 만난다. 관련 프로그램 일정과 게스트는 추후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(<https://www.jeonjufest.kr/>)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한국영상자료원과 함께 '배창호 특별전: 대중성과 실험성 사이에서'를 개최하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4월 30일(수) ~ 5월 9일(금)까지 전주 영화의거리를 비롯한 전주시 일대에서 관객들과 만난다.